

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해결사 노릇 '톡톡'

자금·수출·인력·판로확보·경영·환경개선 등 애로사항 63건 처리 19건은 '처리 중'

연무방제기를 제조하는 A중소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뚫지 못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주시의 도움으로 5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는데 성공했다.

질 좋은 쌀과 잡곡 등을 판매하는 B사회복지기업은 전주시청 구내식당에 납품하면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전주시가 올 상반기 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처럼 자금과 수출, 인력, 판로확보, 경영, 환경개선 등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면서, 중소기업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업 기 살리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되는 역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전주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지역 내 69개 중소기업에 방문해 총 9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 가운데 63건을 해결해줬다.

또, 19건은 현재 처리중이며, 법령개정과 타 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나머지 8건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고 해결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기업 건의사항이 해결된 63건 중 판로확보 지원을 요청한 A업체는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가 없어 방치됐던 연무방제기를 납품했다.

시는 이 업체의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군산 일원에 SI가 발생했을 당시 거점소독 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5억원 상당을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업체는 또 이후에도 타 사업과 연계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쥐었다.

또한, 시는 시청 구내식당에 쌀 등의 납품을 건의했던 B사회복지기업의 건의를 수렴한 후, 품질 확인과 납품 가격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를 수 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시청 전 직원이 해당 사회적 기업의 쌀

소비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는 한 내열공장의 이수관로 배수처리가 어렵다는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경영 환경개선 차원에서 긴급준설대상으로 추가해 처리하고, 해마다 관리대상으로 등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기업과 지속적 스칸십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며 기업의 진정 가려운 곳을 뚫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 기 살리기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기업 현장에서 찾은 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작지만 해당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특일형 강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밑바탕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은행, 도내 댄스팀에 후원금 전달

'HIP HOP International World Final'에 출전하는 L.D.A팀

전북은행과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3일 HIP HOP International World Final에 한국대표로 출전하는 전북 댄스팀 L.D.A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HIP HOP International은 60여개국 4,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힙합댄스 국제대회로, 전북지역 청소년 9명으로 구성된 댄스팀 L.D.A가 한국 예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미국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됐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1인당 400만 원 상당의 경비를 총당할 수 없어 대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있던 청소년들을 위해, 올해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임용택 은행장이 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며 후원에 참여했다.

댄스팀 L.D.A를 지도하고 있는 힙합그룹 라스트포인 출신 이원기씨는 "세계정상을 목표로 도전하는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 후원에 보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벌통 개발로 '관리 수월'

농진청, 먹이공급 쉽고 크기 줄여... 생산자 사용편리성 증가 기대

기존 양봉용 벌통을 개량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새 벌통을 개발해 화분매개 꿀벌 관리가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크기가 작은 먹이 공급형 개포(벌집 덮개)가 든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을 개발했다.

꿀벌, 뒤엎벌 등 화분매개곤충은 체소, 과수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사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중 꿀벌은 전체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관련 시장은 36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은 시실하우스 등에서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화분매개 꿀벌 벌통의 관리가 수월해지면서 농가의 안전성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먼저, 개발한 벌통은 먹이 공급 일체형 개포를 사용함으로써 벌통의 천개포를 열지 않고도 사양수(물)와 화분떡(먹이)을 공급할 수 있어 편리하고, 양봉 농민이 꿀벌에 쏘일 위험성을 줄였다.

또한 수직 사양기(먹이통)를 사용하

는 기존 벌통은 겨울철에 땅의 냉기로 사양수가 차가워져 꿀벌들이 잘 먹지 못했다. 이번에 개발한 벌통은 일체형으로 겨울에도 꿀벌들이 사양수를 쉽게 마실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꿀벌 벌통은 소비(벌집)가 최대 10장이 들어 있으며, 사양기(먹이통)가 별도로 부착돼 있다. 개발한 화분매개 꿀벌 전용 벌통은 6장의 소비만 부착해 크기를 반으로 줄였다.

특히, 벌통 크기를 줄이면서 꿀이 좁은 수박 등을 재배하는데 농가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무게가 가벼워 화분매개 전용 꿀벌 생산자가 농가에 운송할 때도 운송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한 화분매개전용 꿀벌 벌통은 특허출원을 마치고 이달부터 국내 양봉업체에 기술 이전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운영주 농업연구관은 "이번에 개발한 먹이 공급형 개포가 내재된 화분매개 전용 꿀벌 벌통이 화분매개 꿀벌 사용능가, 생산자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화분매개곤충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LH, 수목 하자 감소 조정수목 선진화방안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목 하자 줄이기 위한 조정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093건의 조정공사 하자접수가 있었고 이는 전체 하자접수의 89%를 차지했다. 또 국내 조정공사 발주금액이 약 2조8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보수비용이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LH는 그동안 지속적인 하자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 왔지만 효과가 미

흡해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컨테이너 재배란 박스플라스티포트, 뿌리제어용백 안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노지에서 키운 수목에 비해 하자율을 63%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옮겨 심기에 큰 힘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번 '하자저감을 위한 조정수목 선진화방안 연구용역'은 한국조경학회와 맡아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인재용 기자

전북조달청, 도내 기술우수제품 책자 제작

전북조달청과 전북중소기업청은 도내 우수기업의 기술융합·혁신을 도모하고 기술우수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술우수제품 책자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기술우수제품책자는 기술우수업체 개발·지원사업 담당 기관에서 선정된 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기술, 업체정보 등을 수록했다.

특히, 조달우수제품·성능인증·탄소제품·선도기업제품 등 각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는 제품의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게 구성해 수요기관의 도내 기술우수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자는 수요기관 및 설계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책자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내용을 보완, 추가해 전북조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임종식 전북조달청장은 "도내 기술우수기업의 제품 사용을 유도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 할 것"이라며, "도내 기술우수기업들은 기술융합·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선도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단말기 완전자금제법, 이달중 발의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금제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중 단말기 완전 자금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동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말기 판매는 판매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판매점에 한해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아울러 영세한 판매점이 단말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가 직접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재용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전북, 최저임금 인상 대책 건의문 전달

소상공인연합회 전북도지회는 지난 2일 전북중기청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 건의문을 정원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직접 임금 보전 대상자 확대와 간이과세 대상범위 연 매출 확대,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

입, 인터넷포털 불공정 거래 및 과당 광고비 부담 개선, 소상공인 전용 상품 발행,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연령별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정원택 청장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선을 다해 전달 및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